

# 학교 현안, 함께 공유하며 해법 찾는다

## 전북교육청, 오늘 '학교 간 만남 컨설팅' 개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간 만남을 통해 학교가 고민하는 공통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수업과 삶을 가꾸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2019 고등학교 영역별 '학교 간 만남 컨설팅'을 11월 26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전

주 왕의지빌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교 교원과 각 학교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컨설팅장학사인 장학사가 만나 상호 토론하고, 교육활동 내용을 공유하면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교원의 참여 희망에 따라 1·

2분과로 나눠 '교육과정·교수학습', '생활안전·학급운영' 등의 영역에서 학교 간 상호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일반교과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사운영 등의 내용을 다루고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협력과 참여중심 수업, 학생평가 및 성취평가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기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생활안전 영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 등이, △학급운영 영역에서는 학교업무 정상화 및 학교문화개선, 학교자체평가 계획 및 시행, 각급학교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호 질문과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 전북대 목재가공센터 목공체험 행사 큰 호응

"우리 가족 손으로 이렇게 멋진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센터장 문성필)는 23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목공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10가족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체험행사는 전북대가 위치한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유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전 신청을 통해 5대1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가족들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좌탁을 만들었다.

문성필 목재가공지원센터장(목재응용과학과)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목재 가공 역량을 지역민들과 공유해보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대학과 지역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난 22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생 창조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전북대 LINC+사업단, 지역 밀착형 PT 경진대회 성료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지난 22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생 창조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라북도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전북대 LINC+사업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주기전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00여 명의 학생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팀과 리빙랩 프로젝트 팀 등 총 21개 팀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학생들은 '우리동네 맑은 숲 프로젝트', '전통문화 상품 마그네틱 디자인', '차매예방 일삼 더하기 프로그램 키트' 등 평소 가지고 있던 '지역 밀착형 아이디어'를 기획부터 설계, 상품화 방안까지 깊이 있게 풀어냈다.

대상은 '뚝거노인을 위한 안심 홈 IoT 디바이스'를 소개한 전북대 'Everybody' 팀(팀장 생활환경화학과 정여실, 팀원 신소재공학부 정해진, 신소재공학부 한은주, 건축공학과 신소현, 고분자 나노공학과 박형수, 소프트웨어공학과 정현명, 지도교수 전북대학교 김영선)이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

들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 주목을 받았다.

리빙랩이란 '살아있는 실험실', '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시민이 연구혁신의 대상이 아닌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 공간'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지역주민, 지역기업, 교수, 학생 등이 직접 리빙랩을 운영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속적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혁신 이노베이터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활동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을 이끄는 학생들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호원어학원, 외국인 유학생 전통문화예술체험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호원어학원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 외국인 유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술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통문화예술체험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호원어학원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

체험과 사기진작을 위해 2019학년도부터 매학기 1회씩 실시하는 체험 행사다. 이번 실시한 전통문화예술체험 행사는 충남 서천의 아름다운 바다와 국립생태원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경험하고, 다국적 외국인 유학생들의 친목 도모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했다.

앞서 지난 1학기에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유학생(학부) 50여 명이 경주와 부산지역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 한 바 있다.

전통문화예술체험에 참여한 베트남 300명 학생(경영학부 1학년)은 "학부에 입학하고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다양한 국적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어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면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내가 느낀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랑하며 이야기 해주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영수 호원어학원장(교양과 교수)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와 학교생활에 보다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어학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로운 타국생활이 느껴지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기자

## 생각 나누며 감수성 '쑥쑥'

### 도교육청서 학부모들이 만든 그림동화책·시집 전시

도내 학부모들이 직접 만들고 쓴 그림동화책과 시집 등 작품 전시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전북도교육청이 올 한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나만의 책 만들기(그림동화책) 프로젝트'와 '나만의 시집(대! 詩다)' '최명희 혼불 글쓰기(사각사각 디딤돌)' 등 교육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로,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직접 만들고 필사한 작품 70여 점이 전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그림동화책, 글쓰기(시집·혼불) 학부모교육'을 운영했다.

프로그램별로 각 20회씩 총 6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으며, 프로그램당 20여 명씩 총 6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박서진 동화작가와 함께 창작구상, 글쓰기, 그림동화책 함께 읽기, 생각 나누기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박태건 시인과 함께 한 나만의 시집쓰기(대! 詩다)는 시집 읽기와 쓰기, 문학 전문가 특강, 생각 나누기, 문학기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이어 한용운, 김영

서정주, 조지훈, 김수영, 황지우 등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상 쓰기 등을 진행했다.

최명희 혼불 글쓰기(사각사각 디딤돌) 교육에서는 최기우 극작가가 강사로 나서 글쓰기와 강의를 진행했다.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혼불' 읽기와 쓰기, '혼불' 관련 전문가 특강, 전라북도 문학기행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학부모 교육에 꾸준히 참여한 전선경 학부모는 "가정에서도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다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며 문학분위가 조성되었다"며 "회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문학 감수성을 키우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꿈도 계획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장본이 학부모교육 지원기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 교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께서 '나만의 책'을 만들면서 자신과 세상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장하는 좋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장본이 학부모교육 지원기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 교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께서 '나만의 책'을 만들면서 자신과 세상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장하는 좋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양성평등 문화 정착 파트너십 형성 PT대회 개최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박근철)는 최근 전주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및 KT&G 상생팀과 함께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나의 역할과 모습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상상X커리어 P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상X커리어 PT 경진대회'는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회사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의 남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사전심사를 통해 도내 청년 및 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13개팀(총 36명)을 선발했다.

참가학생들은 고용노동부 여성 정책을 참고해 미리 제시한 3가지 세부주제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올바른 젠더의식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발표했으며, 경쟁을 통해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10팀이 선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심상훈 학생(한국어문학과 3학년)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우리 학생들부터 양성평등 문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사회의 많은 지원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근철 센터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 이념을 구현하지는 취지를 잘 표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고 동등하게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임실은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속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콤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유동까지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ilin.kr

임실군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 임실 고추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

세절건고추

고춧가루